

장편소설

관동여담

김송죽

민족출판사

장편소설

관동의 밤

김송죽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关东之夜: 朝鲜文/金松竹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8. 12

ISBN 978-7-105-09803-3

I. 关... II. 金...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 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204942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北京市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43.75

字数: 866千字 定价: 48.00元

ISBN 978-7-105-09803-3/I · 2015(朝213)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 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8년 12월 제1판 2008년 12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43.75

자수: 866천자 값: 48.00원

ISBN 978-7-105-09803-3/I · 2015(조 213)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관동의 밤

의용군 항일운동과 토비

—머리말을 대신하여

“9.18”사변이 일어나자 당시 유생력량을 집중하여 반인민적인 내전을 벌리고있던 장개석은 동북군에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산해관 이남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투항행위였다.

하지만 일본침략군의 도살과 유린을 받아 망국 멸족의 위협을 심심히 느끼고있던 동북 여러 민족 인민의 반일감정은 점점 높아갔는바 드디어는 민족을 불문하고 각 계급과 계층이 항일투쟁에 궐기하는 고조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동북군경(軍警)의 부분적인 애국군관 이를테면 마점산(馬占山), 리두(李杜), 풍점해(馮占海), 소병문(蘇炳文), 왕덕림(王德林)과 같은 사람들은 장개석의 명령을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구국군(救國軍), 자위군(自衛軍)의 기발을 들고 항전에 나섰다. 이에 크게 고무된 동북의 광범한 노동자, 농민, 지식분자는 물론 부분적인 지주들마저 구국군과 자위군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종교형식의 반일조직이었던 대도회(大刀會), 홍창회(紅槍會)에 들어 항전에 나섰다.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허다한 록림대 역시 분분히 “반일삼림대”의 기발을 들고 침략자를 때려엎는 혈전에 떨쳐나섰으니 1932년 여름까지 상술한 항일무장인원수가 무려 30여만—이것이 바로 한때 동북에서 성세호대하였던 의용군 항일운동인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록림대란 바로 토비를 가리키는것이다. 불가사의

관 동 의 밤

한 일 같지만 당시는 토비도 항일에 나섰었다. 그때의 의용군 성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땅을 잃고 파산당한 농민이 50%, 퇴역군인이 25%, 지식분자가 5%, 토비가 20%였다. 즉 20%의 그 토비무장력이 동북의 의용군 항일운동에서 일으킨 작용을 우리는 결코 도외시할수도 무시할수도 없다.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가!

어느때부터인지 딱히 알수 없지만 인간이 살고있는 이 대천세계에는 하나의 특수한 직업—비(匪)가 생겨났다. 이를 어떤 곳에서는 호자(胡子)나 향마(响马)라 했고 어떤 곳에서는 토비(土匪), 마적(马贼) 혹은 비적(匪贼), 봉자수(烽子手), 강도(强盗) 등이라 불렀다.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이 무리들도 점차 변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 자기들의 조직기구를 가지게 되었고 두령을 선거하는 방법이 있게 되었으며 자기들만의 종교와 신앙이 생겨났고 토템과 숭배가 있게 되었으며 자기들만의 언어와 풍속도 따로 생겨나 하나의 “업종”을 이루게 되었다.

예전에 동북을 일명 관동(关东), 혹은 만주(满洲)라고 불렀다. 청조말부터 민국년간 여기에 토비가 소털같이 많았다고 하니 그것은 국세가 혼란했던 당시의 형세를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중국에는 “개가 급하면 사람을 물고 사람은 급하면 록림객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나쁜짓을 하고 쫓기우다 죽을 고비에 이르러 승천입지(升天入地)할수도 없으니 토비로 된자도 있고 빗을 지고 갇을 길 없으니 도망쳐 토비로 된자도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길림회정(吉林汇征)》에 기재된걸 보면 명조(明朝)의 영락(永乐)년간부터 조정에서 일을 저지르고 추방된 죄신(罪臣)들이 관동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산은 높고 황제는 먼지라 그런자들중 어떤 불량한들은 토비로 전락되고말았다. 재물을 탐내여 토비로 된자가 있는가 하면 벼슬을 하기 위해서 토비로 된자도 있었다. 오죽하면 “벼슬 꿈을 품었거든 토비노릇부터 하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한때 동북에서 패왕(霸王)으로 불리웠던 장작림(张作霖)이 바로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그의 출신이 바로 토비였다.

토비를 류자(縋子)라 하는데 관동의 토비는 주로 막잡이(遵土匪)와 살부제빈(杀富济贫) 두가지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막잡이—이런 류자들은 기와가마(큰 부호)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전문

가난한 백성의 물건을 로략질하거나 인질을 잡아갔다. 보통 7, 8명이 작당하여(起局이라 함.) 싸다니면서 나쁜짓을 서슴없이 감행했는데 지어는 혼자서 이름을 내걸고 해먹는놈도 있었다.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고 증오한것이 바로 이러한 막잡이토비였다.

살부제빈—이런 류자는 전자와 성질이 현저히 달랐다. 그들이 주로 노린것은 대부호인 큰 기와가마였다. 이런 토비는 류자수가 수백명 지어는 1,000여명에 이르는것도 있었는데 두령은 담락이 있었고 수하에 둔 팔대금강(八大金剛)이라는 내외 사랑팔주(内外四梁八柱)도 모두 지모가 출중한자들로 지도부를 결성하고있었다.

이밖에 “구국구민(救国救民)”의 기발을 들고 나선 토비도 있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토비로 치부하겠는가 하겠지만 실은 당시 동북의 민간무장실태를 보면 자연스레 그렇게 규정짓게 되는것이다. 이는 개념상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것이다. 왜서 그들까지 토비 범주에다 넣게 되는가? 주되는 원인이라면 청말이거나 민국초는 물론 “9.18”사변이 일어난후에도 그들은 어느 한 정당권에도 서지 않았거니와 아예 정당 같은것은 믿지 않고 나라의 집권계층에 불만을 품었으며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논것은 물론 기국(起局)으로부터 전반에 이르는 습속, 규율이나 조직형태 같은것이 모두 류자의 방식을 본떴기때문이다.

한편 또 구군대(旧军队)중 어떤자들은 수하 인원들을 끌고 나와 지반을 닦고 그멋대로 패왕노릇을 했으니 그들 역시 토비에 속한것이다.

살부제빈의 기발을 든 큰 토비무리거나 구국구민의 기발을 든 큰 토비무리를 볼것 같으면 다가 기국할 때부터 나라의 법 같은건 개떡같이 여기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것을 락으로 삼고 자유를 제창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막잡이 떨거지토비와는 달라서 일반적으로 백성에게 해를 주지 않고(그들의 10계률을 보아 그같이 단정할수 있다.) 토호와 대부호를 털거나 혹은 돈많은자들만 목표로 삼으면서 지어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었다. 하기에 일반백성한테서는 미움을 사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를 두뇌가 없다고 여길것이 아니였다.

평상시 그같이 로략질을 일삼아온 그들이였건만 일단 외적이 국토를 침략하면 종전의 계급모순은 잠시 제쳐놓고 민족모순을 해결하는것을 급선무로 삼고 항쟁에 나섰다. 왜서 그렇게 했겠는가? 한것은 바로 그들이 가슴 심쳐로부터 내가 중국사람이 옳으냐? 옳다면 침략자를 몰아내고 내 국토를 지켜내야 한

다고 자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오가 있음으로 하여 그들은 그 어느 한 정당의 설복이나 고동을 받지 않고서도 자발적으로 외적을 항격해나설수 있었다. 그네들의 이러한 의로운 애국행동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념원과 맞는것이였다. 하기에 그 행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갈채와 지지를 받게 되였다.

동북 토비가 의용군 항일운동에서 주도적역할을 논것은 물론 아니다. 위낙 인간성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적잖은 지방토비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같은건 근본 념두에 두지도 않았거니와 불난 틈에 도적질하듯 그 흑심한 재난의 와중에도 로략질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가와 겁나서 산속 깊이 숨어 형세 발전이나 보면서 안일한 나날을 보냈던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량심있는 류자들은 그러지를 않았다. “9.18”사변이 일어나자 상점(常占), 청산호(靑山好), 군자인(君子仁), 사계호(四季好), 공평(公平), 로삼성(老三省)을 비롯한 무려 20여개의 이름이 쟁쟁하던 상습토비와 국(局)을 새로 만든 천호(天虎), 조참모장(趙參謀長), 진군(陳軍), 전사령(田司令), 명산(明山)을 비롯한 여러 토비조직들이 용약 항일에 떨쳐 나섰다. 성화(聖化)에서 활동하고있던 무송의 왕지도(王志道)와 같은 유명한 토비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로씨야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용약 떨쳐나서 싸웠을뿐만 아니라 후에는 또 일본침략자를 몰아내는 항일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싸웠다.

당시 의용군은 주로 백성들의 손에 넘겨있는 총들을 거둬가지고 자체를 무장해야 했었다. 그러다보니 총들이 각양각색이여서 탄알이 떨어지면 구입하기가 과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하였다. 그들은 총외에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도 갖고있었다. 한테 그 수자가 얼마 안되였다. 인원에 비하면 무기는 태부족인 형편이였다. 그 실례로 료녕의용군만 보아도 그러하다. 료녕의용군은 초기 집계된 인원수가 20만명이 넘었는데 총은 13만여자루밖에 안되였다. 하여 그들은 부득불 창이나 칼 같은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전투에서 아주 용감했다.

1932년도 화천현 타요자금광(지금은 화남현에 속함.)에서 금광을 지키는 일본군의 손에서 무장을 빼앗아 자기를 무장하고 기국한 기치중(祁致中)의 명산대(明山隊)는 후에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항일련군 제11군으로까지 발전하였는바 전성기에는 1,200명의 호탕한 기병대로까지 발전했었다. 그때 그 대오

를 개조하여 강력한 항일무장부대로 만들기 위해 내부로 뚫고 들어가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로심초사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군정치부 주임이 되어 26세에 열혈의 생명을 마친 우리 조선족동포청년 김정국(金正國)이다.

항일에 나섰던 오랜 상습토비들은 다가 총을 잘 쏘는데다 지형에도 익숙하였기에 유격전을 하는데서 언제나 선수를 끌었다. 《성화료원(星火辽源)》 제4집에 실린 “설야에 당나귀를 끌다”라는 글을 보면 1933년도 겨울에 항일군을 소멸하려고 나섰던 300명의 일본군 “토벌대”가 도리어 이쪽의 유인술에 걸려들어 멋모르고 북만의 미궁 같은 망망한 립해에 기여들었다가 길을 잃어 나가지도 못한채 엄동설한에 몽땅 강시로 되었는데 이듬해 눈이 녹고 날씨가 더워지니 시체 썩는 내가 골안을 꼭 메워 숨쉬기조차 어려워서 거기로는 사람은 물론 지어는 짐승마저도 얼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길래 토비는 이견에서나 적견에서나 다가 수편(收編)하려는 대상이었다. 명산대와 같이 공산당에 수편되어 항일을 끝까지 견지한 의용군이 있는가 하면 해림(海林)의 8대대(八大隊)처럼 그 어느쪽에도 수편되지 않고 고집스레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특무의 간계에 들어 자멸하고만 의용군부대도 있다. 어떤 토비의용군은, 이를테면 해림 위호산의 장락산(독수리)과 같은자는 몇번 싸워보고 리득이 없을것 같으니 항일을 하다가 집어치우고는 광복이 날 때까지 산속에 들어박혀 있으면서 선대로부터 해먹던 짓이나 계속하면서 살았다. 소본량(邵本良)과 같은 토비는 일본군에 수편되어 동변도소비 소장 총사령(东边道巢匪小將总司令)의 급을 위임받고 일본군이 대준 대량의 무기로, 일본군비행기와와의 배합하에 항일군토벌에 선두로 나서기까지 했다. 일제는 그자를 충복으로 써먹기 위해 심양에다 “소공관”을 지어주고 시너까지 여럿을 붙여주었다. 그야말로 령혼까지 적에게 완전히 매수된 무치한 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자들과는 달리 비록 토비출신이기는 하지만 민족심이 살아있는 의용군용사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주보중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1939년의 초여름, 한때 수천명의 삼림대를 거느려서 이름이 났던 토비 두령 제영전(濟永全)은 위호령(威虎岭)에서 마지막 혼자 남을 때까지 단신으로 싸우다가 순난당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자발성적인 항쟁이었던 동북의 의용군 항일운동은 발기초부터 군사, 정치, 물자공급 등 여러 방면에서 허다한 곤란을 갖고있었다. 하여

관 동 의 밤

그 운동은 1933년부터 차츰 가라앉게 된것이다. 30여만의 대오는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의 일로를 걷게 되었고 얼마 안되는 부대만이 산속에 들어가 항일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대오들은 동북 각지에서 일본침략자들에게 침중한 타격을 안기였는바 동북의 항일전쟁사상에 그들이 쌓은 불후의 업적은 부정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사학연구에서 실사구시적인 원칙을 지켜 이 점을 충분히 긍정해주고 이를 사료에 남기는것이 바른 자세가 아닐가고 필자는 말하고싶다.

저자

제 1 부

1

두편 사이에 끝내 싸움이 붙고야말았다. 정면에서는 기병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양편에서는 보병들이 개미떼처럼 협공해왔다. 수류탄이 요란스레 작렬하자 기관총이 기다렸다는듯 사납게 불을 토했다. 허리가 뭉청 잘린 철사가 콩크리트바닥우에서 뱀처럼 꿈틀거렸다. 콩 볶는듯하던 기관총소리가 점차 뜸해졌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라!” 하는 웨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까지만 해도 철통같이 튼튼해보이던 부대가 너무나 맥없이 무너졌다?! 총탄에 쓰러지고 말발굽에 짓밟히고 포탄에 찢어진 전사들의 시체가 도처에 흩어졌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전사들이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혈로를 뚫으며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이제는 적의 총구를 벗어나 어디에 몸을 숨길 곳마저 없었다. 흑룡강이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하며 무섭게 앞을 가로막았다. 전사들은 하는수 없이 총을 내팽개치고 침병침병 강물에 뛰어들었다...

강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속에는 대한독립군 전사 정민호도 끼여있었다. 때는 1921년 6월 28일, 바로 대한독립운동사에서 비극으로 기록된 “자유시사변”이다.

강에 뛰어든 정민호는 중국쪽 대안을 향해 죽을등살등 헤엄쳐갔다. 이 강은 그가 지금까지 건너본 강과는 전혀 달랐다. 물살이 거센데다가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은 강이었다. 정신을 차려야지. 기운을 내자, 기운을! 정민호는 모드를 짊어 강을 건느려다가 몸을 휘딱 뒤번지고 두팔로 세차게 후리질했다.

바로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민호처럼 대안을 향해 결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지쳐가는 모습이 아련풋이 안겨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앞에서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대안을 향해 지쳐가던 젊은이가 얼마 못가서 물밑으로 서서히 가라앉는것이 아닌가! 눈앞에서 익사하는 전사를 보자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구호신(救護神)을 내려보내기라도 하듯 강우에서 검고 긴 물체가 파도에 휘감기며 둥둥 민호를 향해 떠내려오는 것이었다. 오— 하느님 맙시사! 정민호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해서 그 물체를 잡았다. 그 물체는 다름아닌 껍쇠로 묶어놓은 아름드리통나무 2대였다.

정민호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 통나무우로 간신히 기여올랐다. 이제 살았구나! 통나무우에 오르자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길게 후— 내쉬었다.

“더러운 자식들, 자기편끼리 싸우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방금전, 박일리아의 싸할린의용대는 로씨야의 볼셰비크군과 배합한 흑룡주 오하목이 이끄는 자유대대의 세력에 의해 풍지박산이 되고말았다. 어찌 이럴수 있단말인가?! 원쑤에게 돌려야 할 총끝을 자기 편의 가슴에 대다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말인가. 서로 손을 잡고 나라를 빼앗은 왜놈을 몰아낼 생각은 안하고 동족상잔을 벌리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저주스럽고 통분하기만 했다.

이번 싸움은 청산리전투를 치르고 난 만주 여러 독립군부대들이 공동작전을 요망해 로씨야로 건너간후 군권을 장악하려는 그곳의 불순한 야심가들의 압투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었다.

정민호를 실은 통나무는 끝도 없이 둥둥 아래로 떠내려갔다. 한참후 누군가의 손이 통나무우로 힘없이 뻗어올라오는 것이 얼핏 눈에 띄었다. 정민호는 반사적으로 벌떡 몸을 일으켜 얼른 그 손을 잡아당겼다. 민호가 너무나 힘을 쓴 때문일까. 통나무가 평형을 잃고 뒤집어질듯 한쪽으로 기울거렸다. 정민호의 손에 끌려 겨우 통나무우에 올라온 젊은이가 기진맥진한듯 쓰러지며 몇번 물을 토해냈다. 민호는 손으로 이마를 덮은 젊은이의 머리카락을 가르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었다. 정민호는 젊은이가 다시 강물에 굴러떨어질가봐 힘껏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정민호의 고향은 강원도 통천이었다. 가난한 어부집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적부터 가난의 쓴맛을 밥 먹듯하면서 20살의 건실한 청년으로 자랐다. 원래 그의 우로 형이 셋이 있었으나 둘은 병에 걸려 죽고 큰형은 백부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민호가 아직 세상물정을 잘 모르던 어느해 가을, 평시 민호를 끔찍히 아껴주던 아버지가 간다온다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렸다. 어린 민호는 먹고 살기 위해 누님들과 함께 무슨 일인가를 찾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이른새벽부터 바다가에 나가 물고기를 만재하고 돌아오는 고기배를 기다렸다가 이웃을 대신해서 고기배를 따주면서 쫓돈을 벌곤 했다.

그가 13살 나던 해의 어느 여름날, 집을 떠난 뒤로 중무소식이던 아버지가 병신이 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문득 집앞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식구들은 놀라서 어쩔바를 몰라 했다. 아버지를 보고 분개하는 민호나 누나들과는 달리 어머니는 그날 원망 한마디 없이 얼굴에 반가운 기색만을 지어 보였다.

“에그, 귀신이 다 된줄로 알았던 량반이 죽지 았구 멀쩡히 살아 돌아왔구만.”

“아마두 천제님이 날 가엾게 여겼나봐.”

반갑고 서러워 눈물을 찍어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얼굴에 빙긋 미소까지 지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어떻게 됐수?”

어머니가 아버지곁에 다가앉으며 관심 어린 어조로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되긴, 꽤하구말았지. 나, 원 기가 막혀서...”

자배기에 가득 담긴 명태국을 후룩후룩 정신없이 마시던 아버지가 얼굴에 쓴 웃음을 지으며 통명스럽게 한마디 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채응언(蔡應彦)이 이끄는 의병대에 참가하여 왜놈들과 목숨을 내걸고 싸우다 온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천 암자 법당에다
산채불공 말구
외로운 이내 몸을 네가 팔세 말라.

어느날 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바다가에 나가 놀다가 즐겁게 아리랑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오는데 집 뜰안에 홀로 서계시던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민호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나라가 다 망하는 판에 너 매일 그렇게 놀음에만 탐하구 서야 장차 어떻게 사람구실을 하겠느냐며 화를 벌컥 내는것이였다 아버지는 굵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마저 까막눈으로 만들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일 때문에 학교에서 중퇴하고 나온 민호를 그날로 다시 학교에 입학시켰다. 민호는 그뒤 소학교를 마치고 17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올라가 큰형이 있는 백부집에 기거하면서 중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민호가 중학교를 채 마치고도전에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날줄이야. 민호는 시도 때도 없이 학교로 쳐들어오는 왜놈들의 소란 때문에 결국 중도에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3.1”운동후 왜놈들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내어 감옥에 잡아가두기 시작했다. 민호는 “3.1”시위 행렬에 끼여 대한독립 만세를 웨친 혐의가 있기에 통천에 있는 형님과 함께 고향집으로 잠시 몸을 감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일경의 눈을 피해 집으로 피난을 온 민호를 보고 아버지가 대노할줄이야.

“비겁한자식, 그런 토끼 담랑을 가지구 장차 무슨 큰 일을 해먹겠느냐. 입으로 만세를 웨친다구 왜놈에게 빼앗긴 나라가 독립된다고 생각했더냐?! 왜 손에 총을 잡고 피를 흘리며 왜놈과 싸울 생각은 안하구 집구석에만 기여드느냐?!”

아버지의 호통에 화가 치민 민호 형제는 그 이튿날로 부모의 허락도 없이 독립투사들이 구름처럼 운집하고있다는 만주를 향해 결연히 길을 떠났다. 도보로 의주까지 온 뒤 큰형 민수가 도중에 급성폐염에 걸려 집으로 되돌아가고 민호만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왔다.

그때 상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만주 각지에는 국민회니 군정부니 대한군정서니 대한독립단이니 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마냥 생겨나고있었다.

민호는 류하(柳河)지역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려다가 조건이 여의치 않아 나중에는 왕청에 자리잡고있는 대종교 무장부대인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가입했다. 북로군정서는 당시 만주에서 실력이 가장 강한 독립군 무장세력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경에 군영을 옮기느라 서일(徐一)총재와 김좌진(金佐鎭)장군을 따라 청산리(靑山里)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독립군 토벌에 나선 일본군과 목숨을 내걸고 싸웠으며 나중에는 여러 독립군부대와 함께 로씨야로 건너갔다.

통나무우에 쓰러졌던 청년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민호가 얼굴에 웃음을 띠며 먼저 입을 열었다.

“이보게, 자넌 대체 누구인가?”

“난 최뽕이라 합니다.”

청년이 괴로운듯 몇번 입을 실룩거리다가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다.

“최뽕이라, 나이는?”

“19살입니다.”

“그럼 나보다 2살 아래로군. 나는 성이 정씨이구 이름은 민호요. 그런데